

울릉도·독도 명칭고(考)*

송 휘 영**

(e-mail : hysong@ynu.ac.kr)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울릉도·독도 「명칭전도론」의 의도 |
| 2. 울릉도·독도에 대한 명칭변화 | 4. 막말·메이지시대 울릉도·독도의 명칭변화 |
| 1) 한국 측 명칭변화 | 5. 맺음말 |
| 2) 일본 측 명칭변화 | |

키워드 : 鬱陵島·獨島(Ulleungdo and Dokdo), 名称变化(Change the name), 意图(The intentional changes), 鬱陵島·獨島認識(Recognition on Ulleungdo and Dokdo) 対照研究(contrastive study)

1. 머리말

한일 양국에서는 서로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자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고유영토론’을 내세움에 있어 중앙정부와 인근 주민이 독도를 언제부터 어떻게 인식을 해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독도에 대한 명칭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명칭이라는 것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 붙여지며 거기에는 시대적 상황과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 그리고 명칭에는 그 의미와 의도가 다분히 숨겨져 있으며 그것을 변경하게 되면 거기엔 나름의 계획된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8A02929224)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한일관계사

1) 명칭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부르는 이름’으로(네이버 국어사전), ‘이름은 "이르다"의 명사형으로 물건, 사람, 장소, 생각, 개념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부르는 말’이라 정의하고 있다(네이버백과사전).

독도와 울릉도의 명칭변화에 대한 고찰은 비교적 많은 연구가 축적 되어왔다. 대표적 논고로 가와카미 겐조(1966), 신용하(1998)를 들 수 있는데 전자는 일본측 논리로써 일본에서의 독도의 명칭변경에, 후자는 한국에서 독도의 명칭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²⁾ 그간 많은 학자들이 주의를 집중해 왔으며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독도명칭을 규정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이렇듯 명칭 문제는 독도에 관한 인식과 주권 및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도 하였다.³⁾ 한편으로는 일본 외무성은 “독도는 예로부터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의 인지와 명칭 확립에 대한 논리를 정당화 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17세기 초에 「이소다케시마(磯竹島)」에 붙었던 울릉도가 ‘이소(磯)’를 생략한 「다케시마(竹島)」로 변화하였고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島根縣)으로 편입하면서 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고 대나무란 더구나 없는 독도의 일본 명칭을 기존의 「마츠시마(松島)」, 리앙쿠르 락스(Liancourt Rocks)를 대신하여 「다케시마(竹島)」로 뒤바꾸게 된다.⁴⁾

본고에서는 독도·울릉도에 대한 명칭 변화를 개관하고 특히 겐나(元和) 시기와 메이지(明治) 시기 일본의 명칭 변경에 숨겨진 의도를 밝혀내고자 한다.⁵⁾ 이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 한국 측의 독도 명칭 변화에 대해서도 간단히 개관해 볼 것이다. 아울러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의도적 논리조작을 하고 있는 가와카미(川上), 일본외무성, 죽도 문제연구소의 견해에 대해 비판을 더할 것이다. 이러한 수순을 통하여 명칭변화라는

2)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1966; 신용하, 「독도·울릉도의 명칭변화 연구-명칭 변화를 통해본 獨島의 韓國固有領土 증명-」, 『한국학보』, 제91·92집, 1998. 독도·울릉도의 명칭 변화에 대한 다른 연구로는, 이병도, 「우산 죽도의 명칭고」,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이진명, 「서양과 일본 지도상의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 변화」,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2005; 김호동, 「메이지시대 일본의 동해와 두 섬(독도, 울릉도) 명칭 변경의도에 관한 검토」, 『민족문화논총』 제 43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9.12; 김영수, 「근대 독도·울릉도 명칭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시각」, 『역사와 현실』 제73호, 한국역사학회, 2009.9; 서종학, 「죽도 석도의 지명표기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36-3, 2008; 손승철, 「조선전기 요도와 삼봉도의 실체에 관한 연구」, 『한일관계사연구』44, 2013.4. 등을 들 수 있다.

3) 전개 김영수(2009) p.234 참조. 또한 일본외무성 팸플릿의 ‘10포인트’에서도 ‘①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②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4) 18세기 말부터 서양열강의 함선이 동해안에 출몰하게 되는데 프랑스의 항해가 라 페루즈가 울릉도에 이르러 1787년 「다즐레」로, 1789년 영국의 탐험가 코르넬트가 울릉도를 「알고노트」라 명명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이름들이 불게 된다. 이러한 서양식 명칭들은 훗날 일본의 독도·울릉도 명칭 변경의 논리를 제공하게 된다. 소위 일본이 주장하는 「명칭진도론」이 그것이다. 「마츠시마」 혹은 「리앙쿠르」라고 붙었던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한 경위에 대해서는 김화경(2009)을 참조.

5) 겐나연간 츠시마번에 의한 울릉도 개척 제외, 울릉도 쟁계를 둘러싼 교섭과정, 해군 수로부에 의한 명칭 혼동과 명칭 말기의 독도편입 과정 등을 볼 때, 울릉도 및 독도 침탈이라는 강력한 야욕이 배경에는 있었으며 다분히 의도된 부분이 있음을 감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권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⁶⁾

2. 울릉도·독도에 대한 명칭변화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이소다케시마 또는 다케시마라 불렀다. 울릉도에 대한 인지(認知)는 임진왜란으로 조선의 국력이 쇠약해진 틈을 타서 츠시마번을 비롯한 일본의 산인지방 사람들이 쇠환정책으로 비워둔 섬 울릉도에 별채, 어럽 등의 목적으로 무단으로 출입하게 되는데 이는 17세기 이후의 일이다. 해안 절벽과 바위가 많은 섬이라 하여 처음에 츠시마 사람들은 「이소다케시마」라 불렀는데,⁷⁾ 이를 줄여서 「다케시마(竹島)」라고 하기도 했다. 다케시마의 존재가 인식되면서 그 향해의 목표물 또는 중간 정박지로서 「마츠시마(松島)」를 인식하게 되는데⁸⁾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 초기까지 울릉도를 이소다케시마 또는 다케시마라 불렀고 독도를 마츠시마라 불렀다.

한편 한국에서는 신라 지증왕 때인 512년 이사부에 의해 정벌이 되면서 우산국의 명칭이 등장하고 울릉도는 우산국, 우릉도, 무릉도, 우산도 등의 명칭으로 독도는 삼봉도, 가지도, 우산도, 석도 등으로 불렸었다. 우산도와 무릉도 두섬이 함께 문헌에 나타나는 것은 1417년 2월 『태종실록』(태종17년2월 임술)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⁹⁾ 이에 비해 일본 고문헌에서는 이보다 250년 후인 1667년 마츠에번사(松江藩士) 사이토 호센(齊藤豊仙)이 저술한 『인슈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 울릉도와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와 「마츠시마(松島)」라는 명칭으로 처음 나타난다.

6) 이 점은 김영수(2009)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적 풍속에서는 명칭에 투영되는 의미나 관습 등은 서양에 비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전개논문 참조.

7) 『日本書記』에서 전하는 신화에서 종종 「우사시마(宇佐島)」라는 섬이 가끔 동해바다에 있었다는 것들이 전해져 온다. 예를 들어 전설 속에서는 어럽을 나간 어부가 풍랑을 만나 목숨을 건져 돌아오는 설화가 산인지방에는 많다. 이를 우르마시마(宇流麻島)라고도 하는데 우릉도, 무릉도의 음운과 유사성이 있어 보인다. 신용하(1998)의 전개논문 및 도리이 류쥬(鳥居龍藏), 「인류고고학 상에서 본 울릉도」, 『독도연구』, 제3호, 2007(번역문)을 참조.

8) 중앙 정부인 에도막부가 「마츠시마」의 존재를 처음 인식하는 것은 「울릉도쟁계」가 막바지에 이르던 1695년 12월 10일 츠시마번의 가로(家老) 히라타 나오에몬(平田直右衛門)과 막부의 로쥬(老中)의 논의 과정에서이다. 『竹島紀事』, 元祿八年十二月条를 참조.

9) 독도에 우산도라는 명칭이 언제 처음으로 생겼을까? 1417~1425년 조선 세종이 김인우(金麟雨)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于山·武陵等處按撫使)」로 임명해 파견했을 때, 현재의 울릉도에는 「무릉(武陵)」 또는 「울릉도」의 명칭이, 현재의 독도에는 「우산도」의 명칭이 확실하게 분화돼 붙여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신용하(1998) 전개논문.

1) 한국 측 명칭변화

독도는 예로부터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등으로 불려 왔다. 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되면서 우산국의 세력범위로 하여 이때부터 한국의 고유 영토가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¹⁰⁾ 그러나 독도가 처음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세종실록』 「지리지(地理志)」(1454) 울진현 조(蔚珍縣條)에 의한 기록으로 이 기록에 의하면 ‘우산(于山)과 무릉(武陵)이 현(울진현) 바로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어…….’¹¹⁾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산은 독도를 무릉은 울릉도를 가리킨다.¹²⁾

우산과 무릉의 위치나 거리에 관한 것은 『고려사지리지(高麗史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후자의 주(注) 가운데 ‘일설에 의하면 우산과 울릉은 본시 같은 섬이다’라는 기록이 있어 일본 측에서는 일도설(一島說; 우산과 울릉을 두 개의 섬이 아니라, 하나의 섬이다)에 따라 우산과 울릉을 하나의 섬으로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즉 울릉도와 우산도가 합하여 우산국을 형성했으나, 우산국이 멸망하자 자연히 우산도라는 도명(島名)으로 바뀌어 울릉도가 우산도라고 명칭되다가 우산도라는 명칭은 따로 분리되어 주로 독도를 지칭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

조선 초기에는 우산도 외에 삼봉도(三峰島)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성종조에 많은 동해안 어민들이 세금과 균역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간 곳인데, 당시 영안도(함경도)관찰사 이극명이 파견한 김자주 등이 경성 옹구미포를 출발하여 서쪽으로 떨어진 삼봉도에 겁이 나서 상륙하지 못하고 그림만 그려왔는데 그 그림이 현재의 독도와 같다고도 한다. 그러나 『성종실록(成宗實錄)』의 기록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울릉도를 묘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며 반드시 독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¹³⁾

다음으로 가지도(可支島)란 명칭이 있다. 정종실록(1794년) 무오조(戊午條)에 독도를 가지도라 부른 이유가 독도에 강치(海驪)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당시 강치를 울릉도 방언으로 가제라고 부르고 있었으며 이것을 한자로 하여 가지(可支)라

10) 『삼국사기』신라본기와 열전.

11) 于山·武陵二島 在 嶺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

12) 우산(宇山)은 문헌에 따라 여러 형태의 표기가 있는데, 자산(子山), 간산(干山), 천산(千山) 등은 우산의 잘못된 표기로 보여진다.

13) 손승철(2013)에 의하면, 울릉도 주민의 육지 채출이 시작된 이후 새로운 섬의 존재에 대한 풍문이 동해안 연안지방에 확산됐다. 세종 대에는 1430년부터 15년간 요도탐색을 시행했고, 성종 대에는 1472년부터 삼봉도 탐색으로 이어졌지만 요도와 삼봉도라는 새로운 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요도와 삼봉도를 울릉도 또는 독도로 비정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고 한다. 전계논문 참조.

고 한 것이라 한다. 다음으로 등장한 것이 대한제국 칙령¹⁴⁾에서 나타나는 「석도(石島)」인데 그때까지 줄곧 우산도로 일반적으로 쓰였던 것이 갑자기 등장하게 된다.¹⁵⁾ 문제는 이것이 명확하게 독도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다른 직접적 자료가 없고 그 이전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현재의 독도(獨島)라는 명칭이다. 독도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광무 10년(1906년) 음력 3월 5일자 울릉도 군수 심홍택의 보고서에서 심홍택은 당시 일본 오키섬 도사 히가시 분스케(東文輔) 일행이 이 섬을 일본에 편입하였다는 사실을 통고하여 왔다는 보고서 가운데 ‘본군소속 독도’(本郡所属獨島)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보다 2년 앞서 일본의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1904년 일본 군함 니이다카(新高号)가 작성한 일지에서 발견된다. 여기에는 이 바위섬을 ‘방인(일본인)은 리양코라고 부리고 한인들은 바위섬을 독도로 적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¹⁶⁾ 당시 주민들이 바위섬을 독도라 표기한다는 사실은 석도가 틀림없이 독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우리 측 기록에서도 우산도-석도-독도의 명칭 변화를 해명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사료 발굴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2) 일본 측 명칭 변화

일본에서 보면 독도는 울릉도를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1880년대까지 울릉도를 이소다케시마 또는 다케시마로 불렀으며 독도는 마츠시마로 불렀었다. 그 이후 메이지 말기에 이르기까지 독도가 마츠시마-리

14) 「勅令第四一號」

光武四年十月二十五日

御押 御璽 捧

勅 議政府議政臨時□理贊政內部大臣 李乾夏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한件

第一條 鬱陵島를 鬱島라 改稱하여 江原道에 附屬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하여 官制中에 編入하고 郡等은 五等으로 홀事

第二條 郡庁位置는 台霞洞으로 定하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石島를 管轄홀事」

15) 일본 측 주장은 “석도(石島)는 울릉도 주변의 관음도를 말하는 것이다. 울릉도 주변의 죽도(죽서도)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 관음도도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 측에서 말하는 석도가 독도라는 근거가 없다.”고 한다. 일본의 반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석도가 독도로 바뀐 경위나 1900년 이전에 ‘독도’, ‘돌섬’을 의미하는 석도(石島)가 적어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증빙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명칭변화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로서 전계 서중학(2008)의 연구가 있다.

16) 「軍艦新高行動日誌」(1904.9.25.), 김영수(2009) 전계논문을 참조.

양코섬-다케시마로 울릉도는 다케시마-다즐레-마츠시마로 그 명칭이 전도되기에 이른다. 일본 문헌에서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첫 기록이 1667년 사이토 호센(齊藤豊仙)이 저술한 『인슈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 나타난다.¹⁷⁾

[자료1]

인슈(隱州)는 북해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오키노시마(隱岐嶋)라고 한다. 추측컨대 왜의 훈(倭訓)에 의하면 바다 가운데를 오키(遠幾)라고 하기 때문에 명칭이 붙여진 것 같다.…(중략)… 술해간(戌亥間, 서북방향)으로 가기를 2일 하룻밤을 가면 마츠시마(松嶋)가 있다. 이곳(마츠시마)에서 다시 1일 정도 가면 다케시마(竹嶋)가 있는데 세간에서는 이소다케시마(磯竹嶋)라고 부른다. 대나무, 물고기, 군소(海鹿)가 많다. 아마도 신서(神書)에서 말하는 소위 50맹수(猛)인 듯하다.

이 두 개의 섬은 무인의 땅인데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운슈(雲州=出雲国)에서 오키(隱岐)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즉슨, 일본의 서북(乾)의 땅은 이 주(此州)로써 경계(限)를 이룬다.

이 기록은 일본 입장에서 독도를 송도로 울릉도를 죽도로 표기한 것이다. 또한 두 섬이 고려에 속하기 때문에 일본의 서북 경계는 인슈 즉 오키섬을 그 한계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⁸⁾

임진왜란이 일어난 16세기 말에 조선왕조의 통치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일본인이 수시로 울릉도와 독도에 밀입하여 산림을 도벌하거나 그 근해에서 어업을 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울릉도를 이소다케시마(磯竹島) 혹은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침탈하기 위한 근거지로 삼은 곳은 대마도였다, 대마도의 행정책임자는 동래부에 사신을 보내 “울릉도는 이소다케시마로서 일본의 판도에 속하므로 가서 조사하겠다”고 제의했다. 이에 동래부사는 “기죽도는 실로 조선의 울릉도이므로 외국사람과 외국 선박의 왕래를 용인할 수 없다”며 단호한 태도로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일본인들은 죽도(울릉도) 근해의 밀어렵과 출어를 중단하지 않아 그 곳에서 조업하는 조선 어부들과 자

17) 울릉도의 일본측 명칭인 이소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일본서기』와 『대일본사』에서 五十猛島(イツタケシマ)라는 명칭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전화되었을 가능성을 신용하(1998)는 지적하고 있다.

18) 이 해석을 두고 「此州」가 울릉도라는 일본 측 주장과 오키섬(隱岐島)이라는 한국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으나, 최근 오니시(大西)의 연구 이후로는 일본 측의 언급이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 大西俊輝 『日本海と竹島』 東洋出版, 2003; 池内敏, 「近世日本の西北境界」, 『史林』 90卷1号, 2007을 참조할 것.

주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안용복의 납치 및 도일사건으로 말미암아 조일간 외교교섭인 다케시마일건(울릉도쟁계)이 일어났고 그 결과 일단 울릉도(다케시마)·독도(마츠시마)가 일본에 부속하는 섬이 아니라 하여 일단의 결착을 보게 되었다.

18세기 말부터 서양열강의 함선이 동해안에 출몰하게 되는데 프랑스의 항해가 루 페루즈가 울릉도에 이르러 1787년 「다줄레」로, 1789년 영국의 탐험가 코르네티가 울릉도를 「알고노트」라 명명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이름들이 붙게 된다. 이러한 서양식 명칭들은 훗날 일본의 독도·울릉도 명칭변경의 논리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1840년 프랑스의 포경선이 독도를 발견하면서 독도는 리양쿠르섬 또는 리양쿠르섬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얻게 되었고 동해 연안의 어민들이 독도를 리양코섬이라 부르게 되었다.

지금까지 울릉도의 명칭은 이소다케시마-다케시마-다줄레-아르고노트-마츠시마-울릉도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고, 독도의 명칭은 마츠시마-리양쿠르섬-호르넷-리양코섬-다케시마와 같이 불리어 지게 되었다. 일반소위 일본이 주장하는 「명칭전도론」은 이러한 서양인들의 진출과 울릉도 독도 명명과정에서 네델란드인 의사 시볼트가 일본과 동해안의 지도를 서양에 소개하면서 생긴 오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가와카미 겐조가 주장하면서 대두된 것이다.

3. 울릉도·독도 「명칭전도론」의 의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전도론」이 대두된 것은 당시 외무성 관료였던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에 의해 치밀하게 검토된 『죽도의 역사지리학적 연구』에서이다. 유럽인들의 대항해와 더불어 서양의 지도상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의 서양식 명칭의 변화를 통해 마치 일본 정부와 동해안 연안의 일본의 어부들이 혼동하여 쓴 것처럼 기술하였으며 그 후 독도관련 연구서의 바이블적인 위치를 점해왔다. 하지만 울릉도 독도 명칭의 혼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당시 대륙진출과 독도의 전략적 지위를 인식한 해군성에서는 울릉도 독도의 일본식 지명인 죽도 송도를 반대로 인식하여 전도된 명칭을 사용하도 하였다.¹⁹⁾ 그러나 외

19) 실제 일본 해군성이 수로국의 「日支韓航路里程一覽略図」(1882년) 등에서 울릉도에 해당하는 섬을 「마츠시마(松島)」로 기재하고 있으며, 1886년 수로부 발행의 「寶瀛水路誌」제2권 제2판에서도 울릉도 일명 마츠시마(松島) 「서양명 다게레트」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는 해군이 해도를 작성함에 있

무성, 내무성, 태정관 등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일관되게 혼동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명치정부 수립 후 독도를 일본의 영역으로 포함시킬 것인가를 검토하였을 때도 일본정부의 공식적 명칭인식은 예전의 명칭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와카미의 논리를 적용하여 마치 일본 정부가 명칭혼용으로 인하여 다케시마외일도(죽도외일도)가 일본의 판도 외라 하였다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1800년대 후반 독도에 대한 새로운 이름인 리양쿠르섬이라는 명칭의 영향으로 오키섬과 시마네현, 돗토리현 등 산음지방(山陰地方) 주민들은 독도를 리양코섬 또는 양코섬이라 불렀고 일부 어민들이 울릉도를 마츠시마(松島)라 부르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고 있었다. 가와카미 겐조의 연구는 「명칭전도」의 원인을 시볼트의 착각과 실수로 돌려 일본정부가 울릉도독도를 일본의 판도로 결정한 외교적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료3>

【일본에서의 다케시마(竹島)의 인지】

3. 1840년, 나가사키(長崎) 데지마(出島)의 의사 시볼트(Siebold)는 「일본도(日本図)」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오키섬(隱岐島)과 한반도의 사이에는 서쪽으로 「다케시마(竹島)」(현재의 울릉도), 「마츠시마(松島)」(현재의 다케시마)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섬이 있는 것을 일본의 여러 문헌이나 지도에 의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편, 유럽의 지도에는 서쪽으로 「아르고노트섬」, 「다줄레섬」이라고 하는 2개의 명칭이 펼쳐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지도에서는 「아르고노트섬」이 「다카시마」, 「다줄레섬」이 「마츠시마」라고 기재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해 그때까지 일관되게 「다케시마」 또는 「이소다케시마」라고 불리어 온 울릉도가 「마츠시마」라고도 불리는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4. 이와 같이 우리 국내에서는 고래(古來)의 「다케시마」, 「마츠시마」에 관한 지식과 그 후에 구미로부터 전해진 섬 이름(島名)이 혼재하고 있었지만, 그러던 사이에 「마츠시마」를 보았다고 하는 일본인이 동섬의 개척을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섬 이름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1880(메이지 13)년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동 청원서로 인해 「마츠시마」라고 호칭하고 있는 섬이 울릉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 서양의 것을 바탕으로 하여 제작함으로써 빚어진 혼란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일본 외무성의 공식적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의 다케시마(竹島)의 인지에서 가와카미 겐죠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 시마네현이 운영하고 있는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멤버들 사이에서 궁색한 논리조작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근거가 시볼트에 의한 오류와 무토 헤이가쿠(武藤平学) 등의 「마츠시마개척 청원서(松島開拓之議)」의 명칭전도를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19세기 중엽에 울릉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본 것은 조선령 울릉도였고 그들은 다분히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알면서도 그 섬을 마치 새로운 섬인 「마츠시마(松島)」라고 하여 이를 독점적으로 개척하고자 다케시마라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새로 발견한 섬으로 인식한 것처럼 불렀던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일본외무성>, <다케시마문제 연구회>, <가와카미겐죠> 모두가 「명칭전도론」으로 말미암아 독도침탈을 위해 의도적 논리조작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막말·메이지 시대 울릉도·독도의 명칭변화

18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북태평양 어장의 발견, 중국과의 교역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북동아시아 해역은 서양 선박에 노출되기 시작하였고, 극동의 동해로 출입하는 서양의 함선, 어선, 항해선 등의 출몰이 잦아지게 된다. 동아시아의 조선, 청국, 일본은 여전히 자국민이 외국 선박과 접촉을 차단하는 해금(海禁)정책을 실시하여 쇄국정책을 견고히 하고 있었다. 이 무렵 조선은 영조·정조 대의 시기로 청국을 통해 서양의 근대문명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었다. 서양 측에서는 대개 섬을 발견한 선박의 명칭 또는 선장의 이름을 따서 섬의 이름을 붙였는데, 1787년 프랑스 해군 라페루즈(La Perouse) 함대가 동해상에서 해도에는 없는 울릉도와 독도를 발견하게 된다. 울릉도는 발견한 승무원의 이름을 따서 다줄레(Dagelet)라 하고, 그 인근에 있는 죽도(땃섬)는 군함명을 따서 부술(Boussole Rocks)이라 명명하였다. 2년 후 1789년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코르넷(James Cornet)이 같은 울릉도를 발견하여 아르고노트(Argonaut)라고 명명했다.

에도 후기 일본의 지도 제작은 주로 네델란드, 중국 경유로 해외의 지리서, 지도책, 항해기 등을 수입하여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제작 지도를 만들어갔으며 서양지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밀한 지도를 제작했다. 일본과 조선은

비슷한 동해안의 정보는 일본을 통해 유럽에 전달된 정보와 서양 선박들이 흡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 제작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서양제작의 지도에서는 1820년대 나가사키 상관의 의사였던 지볼트(P.F. Siebold)²⁰가 귀국 후 유럽에서 작성한 일본지도에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 죽도라고 부르던 울릉도를 마츠시마(Matusima) 혹은 다즐레섬(Dagelet I.)으로, 울릉도의 왼쪽 한반도 가까운 곳에 다카시마(Takasima) 혹은 아르고노트섬(Argonaut I.)으로 경도를 달리하는 두 개의 섬이 그려지게 된다.

<표1> 서구에 의한 울릉도·독도의 「발견」과 명명

연 도	선명·발견자 등	국 명	울릉도	독도	비 고
1787	라페루즈함대	프랑스	다즐레섬 (북위 37°25′ 동경130°56′)	-	유럽인으로 최초로 발견
1789	아르고노트호 (제임스 코르넷)	영 국	아르고노트섬 (북위 37°25′ 동경130°56′)	-	다즐레섬과 별개의 섬으로 생각함
1840 1852	지볼트저 『일본인 작성에 의한 원도 및 천문관측에 근거 한 일본국지도』	네델란드	다카시마 (아르고노트섬) 송도 (다즐레섬)	-	섬의 위도·경도와 발견자명, 동서 2 도 각각의 도명을 옆에 주기하고 있음
1849	리앙쿠르호(포경선)	프랑스	-	리앙쿠르암	
1854	팔라다호 (푸차친함대)	러시아	<실측에 의해 아르 고노트섬의 위치에 섬이 없음을 확인>	메넬라이 및 올리부차암	
1855	호넷호(군함)	영 국	<실측하여 팔라다 호와 같은 결론을 내림>	호르넷암	
1880 (明治13 年)	해군군함 『아마기(天城)』	일 본	<해도의 송도는 울 릉도(다즐레섬)와 같은 섬이라는 것 을 확인>	리앙쿠르 (열)암	

자료: 다케우치(竹内猛) (2010)²¹에서 인용.

따라서 서양지도에는 울릉도의 실제위치에서 약간 서쪽으로 아르고노트섬이 약간 동쪽으로 다즐레섬이 그려진 것이다. 그 후 일본 상관에서 네델란드로 귀국한

20) 일반적으로 시볼트라 부르고 있으나, 그의 고향인 독일어로 지볼트라고 발음하므로 여기서는 그렇게 부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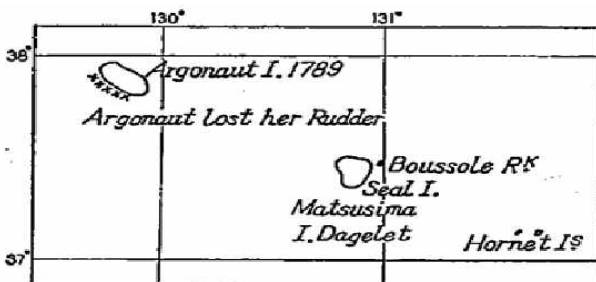
21) 竹内猛, 『竹島独島問題 「固有の領土」論の歴史的検討』, 報光社, 2010年, p.72.

지볼트가 작성한 「일본지도」에서 동해의 두 섬 울릉도와 독도가 각각 다카시마(Takasima)와 마츠시마로 아르고노트섬과 다줄레섬에 대응시켜 병기하게 된 것이다.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Linancourt)호가 독도를 발견하기까지는 다소 위도가 이동한 채 두 섬이 울릉도 독도로 여겨졌다.²²⁾ 그 후,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하여 선명을 따서 리앙쿠르암(Linancourt Rocks)이라 명명하면서, 서양 해도 및 일본 해도에서는 3개의 섬이 동해바다에 그려졌다. 그 후, 1854년 러시아의 팔라다함대의 실측에 의해 독도는 메넬라이와 올리부차암으로, 영국군함 호넷호의 실측에 의해 호르넷암(Hornet Rocks)이라고 기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도가 벗어난 죽도(아르고노트)와 송도(다줄레)의 두 개의 섬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리앙쿠르암(독도) 또는 호넷이 추가된 3개의 섬이 등장하게 된다.²³⁾ 그런데 1850년대에 러시아선과 영국선이 별도로 관측하여 아르고노트섬(지볼트 지도에서 「다카시마」)의 위치에는 섬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도에서 말소되었고, 결과적으로 구미 제작의 지도에서는 조선의 울릉도가 다줄레섬로 여겨져 그 별칭을 「마츠시마」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울릉도의 도명이 「마츠시마(松島)」로 확정된 구미 제작의 지도와 해도는 메이지 시대가 되면서 외국과 접촉이 많았던 해군성 관계를 중심으로 받아들여 사용되었기 때문에, 울릉도의 별칭을 「마츠시마(松島)」로 하는 지도정보가 조금씩 일본국내에 보급되었다.

1854년 3월 11일 미국의 페리제독과의 화친조약으로 개국을 하여, 메이지 시대가 되면서 일본은 민관 할 것 없이 점차로 해외로 진출하게 되었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로 항행하는 일본인이 증가하면서 「죽도도해금지령」 이후 산음지방 사람들에게서 멀어졌던 울릉도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울릉도의 풍부한 삼림자원과 수산 자원 등을 목적으로 하여, 외무성 등에 「송도개척지의」, 「송도개척원」, 「

22) 大西俊輝, 『日本海と竹島』東洋出版, 2003年, pp.29-47.

23) 이러한 것은 1868년 제임스 와일드(James Wyld)가 작성한 지도에서도 발견되는데 여기에서는 아르고노트, 다줄레, 호르넷이라는 3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



죽도개척원」 등이 1876년부터 1878년에 걸쳐 잇따라 제출되었다. 이러한 개척 청원에서 지칭하는 「송도(마츠시마)」란 실로 예전의 죽도(다케시마), 즉 울릉도를 가리킨다. 그 당시 외국의 잘못된 지도의 영향을 받아 울릉도를 짐차 송도라고 부르는 민간인이 증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오모리현인 무토 헤이가쿠(武藤平学)가 제출한 「송도개척지의(松島開拓之議)」, 지바현인 사이토 시치로베에(斎藤七郎兵衛)의 「송도개척원(松島開拓願)」, 시마네현 사족 도다 다카요시(戸田敬義)가 제출한 「죽도도해원(竹島渡海願)」 등의 이름으로 동해의 섬에 대한 개척의 건의서·청원서가 연이어 정부 등에 제출되었다.²⁴⁾

송도개척원을 접수한 외무성은 「송도(마츠시마)」라는 섬의 소재를 둘러싸고 다소 혼란스러워 하였다. 송도와 죽도와의 위치 관계와 동해(일본해) 오키(隱岐) 앞바다에 있는 섬은 두 섬인지, 세 섬인지조차 외무성은 파악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외무성내에서는 갑론을박 여러 설이 분분했지만, 점차 개척 청원에서 말하는 송도(마츠시마)는 종래의 죽도(다케시마)라고 이해되게 되었다. 기록 국장의 와타나베 히로모토(渡辺洪基)는 「그 송도 테라세시마(テラセ嶋)라는 것은 본래 죽도(竹嶋) 즉 울릉도로서, 우리의 송도(松嶋)라는 것은 서양 이름 호르넛록스 인 것 같다」²⁵⁾ 라고 말하여, 개척원에 적힌 송도는 예전의 죽도(울릉도)이며, 고래의 송도는 호르넛록스(죽도=독도)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공신국장 다나베 다이이치(田辺太一)는 개척원의 송도가 예전의 죽도, 즉 「조선의 울릉도」이다 라고 단정하였고, 개척원에 대해 각각 기각이라는 의견을 붙였다. 더욱이 예전의 송도에 대해서는 「듣기에, 송도는 우리 해외주재 일본인이 명명한 이름이며, 사실은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우산이다」²⁶⁾라고 말해, 고래의 송도는 울릉도 부속의 우산도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외무성에서는 예전의 송도와 개척원의 송도를 대체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²⁷⁾ 그 가운데 「죽도」에 대해서는, 에도시대의 기록을 조사하여 조선의 울릉도란 것이 판명되었지만 「송도」에 대해서는 판단이 서지 않았다. 앞의 ‘도명의 전치(轉置)’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혼란이 생겼던 것이다.

24) 도다 다카요시(戸田敬義)의 청원서는 도쿄 지사 앞, 다른 2통은 제블라디보스토그의 무역 사무관을 거쳐 외무성에 제출되었다. 정영미역, 『죽도고증』, pp.294-354.

25) 「其竹島テラセ嶋ナル者ハ本来ノ竹嶋即チ? 陵島ニシテ我松嶋ナル者ハ洋名ホルネットロックスナルカ如シ」, 「松島之議一」, 정영미역, 전게서, p.358.

26) 「松島ハ我邦人ノ命ゼル名ニシテ其实ハ朝鮮蔚陵島ニ属スル于山ナリ」, 「第二十一号 松島巡視要否ノ議」, 정영미역, 전게서, p.477.

27) 정영미역, 전게서, pp.477-503.

여기서, 청원서의 「송도」가 「죽도」와 동일한 울릉도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그 밖에 「송도」라고 하는 별도의 섬이 있는지, 또 그 섬의 영유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일본 정부로서 확정하는 필요를 느꼈다. 그러나 청원서를 검토한 외무성내에서는 갑을병정으로 견해가 나뉘어졌기 때문에, 시마네현에 조회하거나 배를 파견해 현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²⁸⁾ 그리하여, 1878년 6월 외무성의 지시를 받은 해군 소좌 마츠무라 안슈(松村安種)가 아마기함(天城艦)으로 「송도」 확인을 나서게 된다.

[자료5]

또한 해군수로국(海軍水路局)의 「수로잡지(水路雜誌)」에 의하면, 메이지(明治) 11년(1878년) 6월 해군소좌(少佐) 마츠무라 안슈(松村安種)가 아마기(天城艦)를 타고 조선해(朝鮮海)를 회항(回航)할 때 그 승무원 해군 대위(大尉) 야마즈미 지키세이(山澄直清)·해군 소위보(少尉補) 고바야시 하루미(小林春三)·동(同) 후쿠치 구니카네(福地邦鼎)등과 송도(松島)에 갔다. 요시다(吉田) 중위(中尉)가 정오에 본함(本艦)의 소재를 실측하니 북위 37도 48분이었다. 또 오전 7시 58분에 태양 고도를 측정하니 본함 소재는 동경 130도 32분이었다. 이로부터 침로(針路)를 남동으로 바꾸어 수정의(水程儀)를 갖고 측정하던데 향해 속도 20리, 송도(松島)에서 2리 떨어진 곳에 이르러 송도의 중부(中部)를 정남으로 바라보았다고 하였다. 이것이 우리 군함이 송도를 측량한 것의 시작이다. 그 후 메이지 13년(1880년) 아마기(天城艦)가 다시 송도로 향해함에 이르러 해군 소위 미우라 시게사토(三浦重郷) 등이 친히 그 땅에 가서 실지측량 하게 되었는데 그 섬 동안(東岸)에 임시 정박지를 발견하였다. 또한 송도는 고대 한국인이 울릉도(鬱陵島)라 칭한 곳으로서, 달리 죽도(竹島)라 칭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조그마한 소도(小島)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어 사정은 더욱 명료해졌다. 이로써 보면 오늘의 송도는 즉 겐로쿠(元祿) 12년(1699년)에 칭한 바의 죽도로서 옛날부터 우리 판도(版圖) 밖의 땅임을 알 수 있다.²⁹⁾

28) 청원서의 내용 및 외무성내의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1966, pp.31-46.

29) 「又海軍水路局ノ水路雜誌二摺レハ明治十一年六月海軍少佐松村安種天城艦ヲ以テ朝鮮海ヘ回航ノ際其乗員海軍大尉山澄直清海軍少尉補小林春三同福地邦鼎等一松島ニ赴キ吉田中尉は正午本艦ノ所在ヲ実測シ北緯三十七度四十八分ヲ得又午前七時五十八分ニ太陽高度ヲ測リテ本艦所在ノ東經一百三十度三十二分ヲ得是ヨリ針路ヲ南東ニ變シ水程儀ヲ以テ測リ航走スル二十里松島ヲ去ルニ里ノ処ニ達シ 松島ノ中部ヲニ望ム云々トアリ是我軍艦松島ノ測量スルノ始メナリ其後明治十三年天城艦ノ再ヒ松島ニ航スルニ及ヒ海軍少尉三浦重郷等親シク其地ニ至リ 実見測量スルニ及ヒ該島東岸ニ假泊ノ地發見シ又松島ハ古代韓人稱スル処ノ鬱陵島シニテ他ニ竹島ト稱スル者アルモ叢爾タル小島ニ過キセルヲ知リ事情愈明了ナリ由此觀之ハ今日ノ松島ハ即チ

아마기함의 실측조사는 1878년 6월과 1880년 9월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송도를 둘러싼 명칭혼란은 종식되기에 이르렀다. 항간에서 새로운 섬 송도(마츠시마)라고 개척을 청원하던 섬은 사실은 조선의 울릉도로, 예전에 일본에서 죽도(다케시마)라고 불렀던 것이었음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고 명칭혼란의 종지부를 찍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의 내의 논란은 명확해졌으나, 해군성의 기록 및 해도에서는 울릉도의 명칭에 일명 송도(마츠시마)라는 명칭이 남겨지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막말(幕末)에서 메이지 시대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의 울릉도·독도 인식을 점검하기 위해 관련 문서류 및 해도 등을 통해, 태정관과 외무성, 내무성, 해군성 등 관계 각성이 두 개의 섬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표3>로 정리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1869년 12월에 이미 죽도(다케시마, 울릉도)와 송도(마츠시마, 독도)를 일본 영토 외로 하는 인식이 명확하게 자리 잡았다. 외무성은 조선과의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을 모색하고 조선의 내정을 탐색하기 위해, 태정관의 재가를 얻어, 동성 고관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사이토 사카에(齋藤栄) 등을 조선에 파견했다. 사다(佐田) 등은 그 이듬해 1870년 5월 15일, 조선 왜관 등에서 내탐한 결과를 보고서 「조선국교때시말내탐서(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로 제출하였고, 그 안에서 「죽도·송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있는 시말(竹島松島朝鮮付屬に相成候始末)」이라고 제목을 붙인 항에서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자료6] 죽도·송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

이 건은 송도(松島)는 죽도(竹島)의 이웃섬으로서 송도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게재된 서류도 없다. 죽도의 건에 대해서는 겐로쿠 시기 이후에는 잠시 조선으로부터 거류를 위해 사람을 파견한 적이 있다. 당시는 이전과 같이 무인으로 되어 있었다. 죽목(竹木) 또는 대나무로부터 큰 갈대가 자라며 인삼 등도 자연적으로 난다. 그 밖에 해산물(魚産)도 상용하게 있다고 들었다.

위(右)는 조선의 사정을 실지 조사(偵索)하여 대략 서면과 같이 되어 있다. 먼저 돌아와서 조사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이번에 보고하는 바입니다. 이상.

午(1870년) 4월

외무성 출사(出仕)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元祿十二年稱スル所ノ竹島ニシテ古來我版圖外ノ地タルヤ知ルヘシ」(北沢正誠, 「竹島版圖所屬考」, 明治十四(1881)年八月, 또는 『日本外交文書』第14卷, p.394)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사이토 사카에(齋藤榮)³⁰⁾

이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외무성도 죽도·송도가 겐로쿠(元祿) 시기 이후에 조선령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인식은, 외무성으로부터 조선내탐의 보고를 받은 태정관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겐로쿠(元祿) 시기 이후 덴포(天保) 시기에도 이마즈야 하치에몽(今津屋八右衛門) 사건³¹⁾을 계기로 죽도로의 항해와 먼바다 항해가 금지되었으므로, 죽도(竹島)와 송도(松島)는 조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 내탐서와 태정관지령문(「죽도의일도는 본방과 관계가 없는 섬이다」)을 통해 일본, 외무성은 울릉도와 독도를 죽도와 송도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그것을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마기함의 울릉도 실측 보고인 「수로보고(水路報告)」 제33호 및 기타자와 마사노부(北沢正誠)의 보고서 「죽도판도소속도(竹島版圖所屬考)」를 계기로 차츰 울릉도의 명칭을 외교문서 등에서 ‘울릉도’라고 명시하게 되었고, 재부산 일본영사관 보고서 『통상취찬(通商彙纂)』에서 독도의 명칭을 「리양코」라고 사용할 때까지는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와 「태정관지령문」 이후 일관되게 송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표2> 막말·메이지 시기 일본 정부의 울릉도·독도 인식

시기*	태정관(막부, 내각)**		외무성		내무성		해군성		전거(출전)
	울릉도	독도	울릉도	독도	울릉도	독도	울릉도	독도	
1837.2	죽도	송도							「天保竹島渡海禁止令」

30) 「一竹島松島朝鮮附屬ニ相成候始末

此儀ハ松島ハ竹島ノ隣島ニテ松島ノ儀ニ付是迄掲載セシ書留モ無之竹島ノ儀ニ付テハ元祿度後ハ暫クノ間朝鮮ヨリ居留ノ為差遣シ置候処當時ハ以前ノ如ク無人ト相成竹木又ハ竹ヨリ太キ民ヲ産シ人參等自然ニ生シ其余漁産モ相應ニ有之趣相聞ヘ候事右ハ朝鮮事情實地偵索イダシ候処大略書面ノ通リニ御座候間ト先歸府仕候依之件々取調書類給函面トモ相添此段申上候以上

午四月

外務省出仕

佐 田 白 茅

森 山 茂

齋 藤 榮」

(「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 日本外務省, 1970年5月15日)

31) 이 사건을 「덴포 죽도일건(天保竹島一件)」이라고 하여, 안용복 사건(「元祿竹島一件」)과 구별하고 있다.

1870.5.15	죽도	송도	죽도	송도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1875					죽도	송도			『磯竹島史略』
1876							송도	울리부차 메넬라이	『朝鮮東海岸圖』海軍水路 寮
1876.10.5					죽도	송도			『지적편찬』 내무성 지적 계 문의
1877.3.17	죽도	송도	죽도	송도	죽도	송도			『太政官指令文』
1878.1 (1875.1.4)	죽도	송도			죽도	송도			『日本地誌提要』 권50, 태 정관 지리과 편
1877.1					죽도				戶田敬義「竹島渡海請願 書」(동경부 제출), 『竹島 考證』
1880.9.13			울릉도				울릉도 [송도]		『天城艦』의 실측, 『水路 報告』第33號
1881.8			죽도/ 울릉도						『竹島考證』(北澤正誠)
1881.8.20			죽도/ 울릉도						『竹島版圖所屬考』(北澤正 誠)
1881.8.27 ~83.11.16.	울릉도		울릉도	(송도)					『朝鮮國鬱陵島에 邦人渡 航禁止의 件』(외무성(井 上)과 태정관(三條)의 교 환문서), 『日本外交文書』
1883.7							송도		『水路雜誌』第16號
1883.7							울릉도[일명 송도]		『水路雜誌』第41號
1886.12	(이하 내각)						울릉도 일명송도	리양코르 트열암	『寶瀛水路誌』第2卷2版
1894.11							울릉도[일명 송도]	리양코르 트열암	『朝鮮水路誌』全
1895.6.25			울릉도	(송도)					『鬱陵島 引揚者の 處置 에 관한 件』, 『日本外交 文書』
1896.4							울릉도 [송도]	리양코르 도암	『朝鮮全岸』, 外務省水路 部
1902.10.16			울릉도	리양코/ 송도					『通商彙纂』第234號, 『鬱 陵島事情』
1904.9.29	울릉도	리양코	울릉도	리양코	울릉도	리양코			『리양코섬 영토편입 및 대하원』
1905.1.28	울릉도	리양코/ 죽도							『竹島領土編入閣議決定』 관련문서
1905.9.3			울릉도	리양코					『通商彙纂』第50號, 『鬱 陵島現況』
1907.3							울릉도 일명송도	죽도	『朝鮮水路誌』第2改版
1911.12							울릉도 [송도]	죽도[죽 도]	『日本水路誌』第6卷

주: 자료는 필자 작성. * ()안은 집필시기를 말함. ** 태정관(太政官)은 민부성, 병부성 등 6성
을 관할하는 최고행정기관으로서, 존속기간은 1868.6.11~1885.12.22로 내각제도가 발족되면서
폐지되었음.

이렇게 볼 때, 1902년 외무성의 『통상회찬』이 발간되기까지 일본 정부, 특히 태정관과 내무성, 외무성 등은 울릉도를 ‘죽도(竹島)’로 독도를 ‘송도(松島)’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표2>를 참조). 특히 외무성은 1880년 이후부터 종래에 죽도라고 불렀던 섬은 조선의 울릉도이고 지도 등에서 일부 ‘송도’라고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해도 등의 영향으로 해군성만은 울릉도를 ‘송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내탐서(외무성)와 태정관지령(태정관), 지적편찬 내무성문의서(내무성)을 통해 두 섬을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죽도문제연구회」가 울릉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외일도(外一島)」란 「송도(松島)」로 명백히 독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즉 1877년 「태정관지령」 당시의 일본 정부는 송도(독도)가 일본령이 아닌 한국령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며, 따라서 공식문서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메이지 초기에서 19세기말까지 이어졌으며, 최고결정기관이었던 태정관과 내무성에서는 일관되게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울릉도를 ‘죽도’ 내지 ‘울릉도’로, 독도를 ‘송도’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1900년 이후, 송도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리양쿠르, 리양코, 량코, 랑코, 양코와 같은 외래 명칭이 일반화 되었다.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죽도(竹島)’라는 옛울릉도 이름으로 명명한 이후에는, 공식 문서에서 죽도(다케시마)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산음지방(山陰地方)의 연해 어민들은 1945년 패전이 될 때까지 여전히 독도를 리양코섬 또는 랑코섬으로 불렀었다.³²⁾ 이에 반해 유독 해군성만은 1880년 울릉도 실측조사로 송도가 울릉도임을 확인하면서도 해도나 수로지에서 울릉도를 ‘울릉도 일명 송도’ 혹은 울릉도[일명 송도]라 하여, 송도란 명칭을 울릉도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죽도문제연구회」나 일부 일본 측 연구에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와 「태정관지령」 등에 등장하는 ‘송도(松島)’ 즉 독도를 ‘명칭혼란’ 탓으로 돌려 그것을 ‘울릉도’라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섬’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된 잘못이라 할 것이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영유권 논쟁에서 일본측 방어논리의 중요

32) 다케우치(竹内猛), 전개서, pp.71-72. 1836년 하치에몽사건(八右衛門事件) 이후 「덴포도해금지령(天保渡海禁止令)」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산음지방(시마네현, 돗토리현) 연안의 사람들에게 멀어져 갔다. 그러나 메이지시대 이후에도 그들에게 울릉도를 죽도(竹島), 독도를 송도(松島)라고 하는 인식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한 역할을 하는 「명칭전도론」이 다분히 의도된 논리라는 것을 검토하였다. 원래 이소타케시마(磯竹島)라 불리었던 울릉도가 다케시마라 변경되어 불리어진 것도 그렇고 다시 마츠시마라는 명칭을 일부러 부여한 것도 울릉도 침탈을 위해 이루어진 것들이다. 마찬가지로 독도를 마츠시마라 하던 것을 리양코섬이라 부르고 이를 새로 다케시마라고 한 것도 다분히 영토편입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부여된 명칭이다.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영토표탈의 동기에서 의도적으로 생겨난 것이라 알 수 있다. 게다가 명칭변화를 연구하여 「명칭전도론」을 세운 가와카미 겐죠의 논리조차 다분히 치밀한 계산 하에서 만들어낸 조작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영남대 독도연구소에서 새로 공개한 「일로청한명세신도」에 대하여 「죽도문제연구회」의 좌장인 시모조 마사오(下条正夫)의 반박문에서도 명백히 국경선을 독도와 오키섬 사이에 명시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이 시기의 마츠시마(독도)는 독도가 아닌 울릉도이며 다케시마라 표기된 울릉도에 대해서도 시볼트의 지도에서 나타난 가공의 섬 아르코노트라고 주장한다. 즉 그간 일관되게 이용해왔던 「명칭전도론」을 아직까지도 방어논리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검토된 울릉도·독도에 대한 「명칭전도론」이 일본 정부에 의해 의도된 조작논리라는 것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독도 영유권 관련 일본 측 사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가적으로 이어져야 하며,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사료적 근거를 가일층 발굴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梶村秀樹, 「竹島=独島問題と日本国家」, 『朝鮮史の方法』, 明石書店、1978.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復刻版) 古今書院, 1996

池内敏, 「近世日本の西北境界」, 『史林』 90卷1号, 2007.1.

池内敏, 「竹島渡海と鳥取藩 - 元祿竹島一件考·序説」, 『鳥取地域史研究』 第1号, 1999.

池内敏, 「竹島一件の再検討-元祿 6-9年 日朝交渉」, 『名古屋大学文学部 研究論集 史学 47』, 2001.

도리이 류쥬(鳥居龍藏), 「인류고고학 상에서 본 울릉도」, 『독도연구』, 제3호, 2007

下条正夫, 「第22回 朴炳涉氏の「明治政府の竹島=独島認識」(「北東アジア文化研究」第28号)を駁す」, 『実事求是』, Web竹島問題研究所ホームページ,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2/takeshima05-d.html>)

- 김호동, 「메이지시대 일본의 동해와 두 섬(독도, 울릉도) 명칭 변경의도에 관한 검토」, 『민족문화논총』 제43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9.12.
- 김영수, 「근대 독도·울릉도 명칭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시각」, 『역사와 현실』 제73호, 한국역사학회, 2009.9.
- 선우영준, 「한국땅 독도 제도의 형성과 변화 과정의 분석」,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2007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4)』, 2009.
- 임영정, 「독도의 호칭에 관한 제설의 검토」, 『吳洪哲 교수 回甲論叢』, 吳洪哲教授回甲論叢刊行委員會, 1995.
- 서종학, 「죽도 석도의 지명표기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36-3, 2008.
- 손승철, 「조선전기 요도와 삼봉도의 실체에 관한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44집, 한일관계사학회, 2013.4.
- 이병도, 「우산 죽도의 명칭고」,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 신용하, 「독도·울릉도의 명칭변화 연구-명칭 변화를 통해본 獨島의 韓國固有領土 證明-」, 『한국학보』, 91·92, 1998.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선, 2006.
- 이진명, 「서양과 일본 지도상의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 변화」,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2005.
- 日本外務省ホームページ(<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 半月城通信ホームページ (www.han.org/a/half-moon)

논문 투고 일자 : 2017. 10. 10.
논문 심사 일자 : 2017. 10. 26.
게재 확정 일자 : 2017. 10. 27.

 <要旨>

鬱陵島・独島の名称考

宋彙榮

本論文では、独島をめぐる韓日間の領有権論争において日本側の重要な防御論理の役割をなす「名称転倒論」が多分に意図的な論理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もともと磯竹島と呼ばれた鬱陵島が竹島と変更され呼称されたこともそうであり、再び近代に入ってから、松島という名称をわざわざ付与することも鬱陵島侵奪のため行われたものである。同様に松島と呼ばれていた独島が^明やんこと呼ばれ、これをまた新しく竹島としたことも多分に領土編入の過程で人為的に付与された名称である。これらのことだけみても領土侵奪の動機から意図的に生じせしめたものであることが分かる。さらに、独島の名称の変更を研究して「名称転倒論」を打ち立てた川上健三の論理さえ多分なる緻密な計算のもとで作られたギミックであるということができよう。

Rethinking the Name Change of Ulleungdo and Dokdo

Song, Hwi-Young

This paper examined the purposed logic of the "Theory of Name Reversion," which takes an important Japanese defensive role in territory dominion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In Japanese, Ulleungdo is called Takeshima, which originally from iso-takeshima(磯竹島). However, its name was changed to Matsushima, which was caused by the Japanese territorial encroachment of Ulleungdo. Similarly, Dokdo was initially called as Matsushima, and then changed to Liancourt Rocks, which finally turned into Takeshima during Japan's territorial annexation. These name changes were for the purposes of Japanese territorial invasion. Furthermore, according to Kawakami Kenzo, who studied Dokdo's name change, the insistence of "The Logic of Name Reversion" was also a kind of acute manipulation.